

서울의 모정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04.25.	조사자	정화영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서울의 모정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가수	패티김	작사가	길옥윤	작곡가	길옥윤
음반 제작연도	1973년	음반 제작사	히트레코드	음반 규격	310mm×310mm
가사	<p>희망의 새아침이 밝아오면은 발걸음 가벼운 태양의 거리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그대와 둘이서 그리운 서울 정다운 마음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운 서울 불타는 가슴 언제 언제까지나</p> <p>남산의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운 그 노래를 불러봅니다 흘러가는 강물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내 사랑 그대여 그리운 서울 정다운 마음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운 서울 불타는 가슴 언제 언제까지나</p> <p>성당의 종소리가 들리는 저녁 네운의 바다에서 꿈을 꾸었네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아-아- 행복한 명동의 거리 그리운 서울 정다운 마음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운 서울 불타는 가슴 언제 언제까지나</p> <p>랄라랄 랄라 랄랄 라라 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 랄라 랄라라 랄라랄 랄라라-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p>				
평가	<p>1973년에 신세계레코드에서 발매한 패티김의 독집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서울의 모정>은 <서울의 찬가>와 함께 길옥윤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패티김이 불러 히트한 대표적인 서울 노래이다. 1966년에 결혼한 길옥윤과 패티김은 세간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 가지 갈등과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면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1971년 9월부터 두 사람은 실질적인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 별거 이후에 한동안 방황하던 길옥윤은 마음을 다잡고 1972년 5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만들어 온 노래가 <이별>, <서울의 모정>, <사랑의 기도>등이다. 다시 패티김과 재회한 길옥윤은 녹음 작업에 들어가 1973년에 음반을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총 10곡이 수록된 이 음반에서 길옥윤의 후회와 회한이 묻어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음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1973년 9월 둘은 이혼했다. 패티김의 말처럼 음악적으로 환상적인 짝이었으나 부부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모정>은 <서울의 찬가>와 마찬가지로 희망과 낙관이 지배적인 정서로 자리하고 있는 노래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울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로, 많은 세인의 공감을 얻으면서 애창되었다.</p>				

2. 보존필요성

- 1970년대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
- 서울의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활용방향

- 서울과 연관된 노래에 대하여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
-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패티김(김혜자) (PATTI KIM, 1938년 ~ 2005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8년 서울 출생 - 1956년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및 국무총리배 판소리 경연대회 입상 - 1959년 미국 가수 ‘패티 페이지’와 같은 명가수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패티김’으로 데뷔 - 1960년 일본 NHK-TV 초청 패티김 콘서트 활동 - 1963년 미국 뉴욕·라스베이가스 진출 공연 및 뮤지컬 활동 - 1967년 TBC-TV 'PATTI KIM SHOW' 진행 - 1978년 대중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패티김 리사이틀’ 공연 - 1989년 한국인 가수 최초로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 공연 - 2006년 대한가수협회 명예회장 - 2012년 은퇴 기념 투어 이 후 가수 생활 마감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노래 「서울의 찬가」, 「사랑하는 마리아」, - 1965년 노래 「그대없이는 못살아」 - 1973년 노래 「서울의 모경」 - 1978년 노래 「못잊어」, 「서울의 모경」, 「살짜기 읊서예」 - 1983년 노래 「이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1984년 노래 「초우」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덕성여자대학교 주최 전국 민요대회 창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 1974년 동경가요제에서 <사랑은 영원히>라는 곡으로 입상 - 1995년 여성을 돕는 여성상 수상 - 1996년 화관문화훈장 수상 - 1996년 제 3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대상 및 문화훈장 5등급 수상 - 2004년 제 19회 골든디스크상 공로상 수상 - 2005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및 서울사랑 시민상 수상 - 2013년 대중문화예술상 문화훈장 수상 		
기타사항	-		

※ 출처: 한국 대중가요 앨범6000 [패티김] (<http://terms.naver.com>), 시사상식사전 [패티김] (<http://terms.naver.com>), 네이버 뮤직 [패티김] (<http://music.naver.com>), 위키백과 [패티김]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름	길옥윤(최치정) (吉屋潤, 1927년 ~ 1995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7년 평안북도 영변 출생 - 1941년 평양 종로국민학교 졸업 - 1947년 평양 고등보통학교 졸업 - 1949년 경성대학교 치과대학 입학 (1943년 경성치과전문대학(서울대학교 치과대 전신)) - 1952년 일본 주일미군캠프촌 순회 악단 조직 및 예명 '요시아준' 으로 활동 - 1960년 동경 스윙 오케스트라 악단 인솔하여 서울 귀국 - 1962년 「내 사랑아」 서울에서 작곡가로 데뷔 - 1981년 태양음악주식회사 창설 기념으로 「길옥윤 전집」 출판 - 1981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관악기연주자의 치열과 교합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취득 - 1982년 길옥윤전집(LP 2매) 출판 - 1983년 서울예술전문대학 실용음악과 주임교수로 취임 - 198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L.A.올림픽문화행사에 참가하여 예일대학에서 한국의 전통음악리듬(세마치장단)과 JAZZ음악과의 접목을 강의 - 1985년 88올림픽 공식 주제가 「아침의 나라에서」 작곡 당선 - 1989년 신사동 '창고' 야간업소 운영 - 1994년 척추 수술 이 후 SBS TV 마지막 콘서트 방송 - 1995년 사망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작곡 「내 사랑아」 - 1965년 작곡 「사랑은 영원히」, 「부산찬가」 - 1967년 작곡 「빛과 그림자」 - 1969년 작곡 「서울의 찬가」, 「1990년」 - 1971년 작곡 「이별」 - 1973년 작곡 「서울의 모정」 - 1976년 작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 - 1979년 작곡, 작사 「제 3한강교」 - 1994년 「부산찬가」, 「2002년」 작곡 	
수상경력	-	
기타사항	-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길옥윤] (<http://terms.naver.com>), 두산백과 [길옥윤]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길옥윤]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6. 기사사항

□ 가요앨범 리뷰 - GREATEST HIT VOL.3

1973년 신세계레코드에서 발매한 패티김 독집 앨범이다. 총 10곡의 수록곡 중 타이틀곡 <이별>과 희망을 메시지를 담은 행진곡풍의 <서울의 모정>이 히트했다. 수록곡 전반에는 패티김과의 결별을 앞두고 길옥윤이 느낀 회한과 미안함이 가득하다.

잉꼬부부 패티김 · 길옥윤의 갈등설

패티김 · 길옥윤 부부는 1966년 결혼 이후 잉꼬부부로 세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1971년 일본 주간지 「주간대중」에 게재된 패티김의 살색 수영복 누드 사진 사건으로 곤혹을 겪으면서부터 이들의 갈등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했다.

세 차례의 사업 실패를 겪으며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부부는 1971년 9월 떠난 하와이 여행에서 결별했다. 명목상으로는 길옥윤이 제즈 공부를 위해 미국 보스턴으로 가고 패티김은 아이와 함께 귀국했지만, 사실상 별거였다. 패티김은 귀국 후 이민설, 유태계 사업가 W씨와의 염문설, 주한 고위 미군 장성 모씨와의 동거설 등 온갖 악성 스캔들에 시달렸다. 홀로 미국에 남은 길옥윤 역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 일본에서 한때 그랬듯 술과 도박에 빠져 방황했다.

길옥윤의 회한과 후회로 가득 찬 앨범

한동안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던 길옥윤은 마음을 다잡고 1972년 5월 신곡 <이별>, <서울의 모정>, <사랑의 기도> 등을 만들어 귀국했다. 다시 패티김과 재회한 길옥윤은 서울 장충동 스튜디오에서 신보 제작을 위한 녹음 작업에 들어갔다.

1973년 신세계레코드에서 패티김의 독집 「GREATEST HIT VOL.3」을 발매했다. 총 10곡의 수록곡 중 타이틀곡 <이별>과 희망을 메시지를 담은 행진곡풍의 <서울의 모정>이 히트했다. 상반된 정서를 담은 두 곡은 길옥윤이 직접 작사까지 했다. 특히 <이별>은 음반 발매 이후 MBC 「금주의 인기가요」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패티김의 대표곡이 됐다. 수록곡을 보면 패티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길옥윤의 바람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이별>의 가사도 지난날을 후회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사랑이여 다시한번>, <사랑의 기도>, <바람따라 별따라> 등 거의 대부분의 노래에 길옥윤이 느꼈던 회한과 미안함이 스며 있다.

노래 제목 <이별>처럼 앨범 발매 후 이혼해

<이별>의 원제목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이별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던 패티김이 노래를 받은 후 제목을 <이별>로 정했다는 설이 있다. 의미심장한 제목의 <이별>이 크게 히트하면서 세간에는 부부의 파경설이 돌았다. 4개월 후 패티김과 길옥윤은 1973년 9월 전격 이혼을 발표해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 이혼 발표와 더불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된 <이별>은,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해 흥행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외모와 성격부터 판이하게 달랐던 두 사람

패티김·길옥윤 부부는 외모와 성격부터 판이하게 달랐다. 조용하고 선비 같은 이미지였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길옥윤과 달리, 화려하고 도도한 이미지의 패티김은 오히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성격이었다.

패티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음악적으로는 환상적인 콤비였지만 현실에서의 부부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분이고 저는 한 달, 일 년을 계획하고 옆길로는 가지 않으려 노력하고 살았던 피곤한 사람입니다. 서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라고 회고했다.

당시 대중은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을 듯해 보이는 패티김에게 결별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했다. 이혼 후 패티김은 모든 출연 스케줄을 취소하며 2개월 간 두문불출했다. 그때부터 “패티가 이태리인과 결혼하고 이민 간다. 이혼은 그 남자 때문이다” 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혼란 중에도 패티김은 1974년 앙드레김과 패션쇼를 펼치고 그해 6월 이형표 감독이 연출한 영화 「속 이별」에 딸과 함께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1970년대 내내 재발매된 음반

무성한 화제를 모은 패티김의 대표곡 <이별>을 수록한 이 앨범은 1973년 신세계레코드에서 초반을 발매했다. 히트레코드에서 제작한 다른 음반도 나왔다. 두 음반의 제킷에는 타이틀곡이 4곡인데 공히 발매 연월일을 명기하지 않았다.

노래 발표와 맞물린 부부의 이혼 후 이 앨범은 엄청난 판매 기록을 이어가며 1978년까지 재발매 음반이 나왔다. 현대음향에서 1975년으로 발매연도를 처음 명기한 세 번째 재발매 버전에서는 타이틀곡 4곡 중 번안곡 <대부(영원한 사랑)>을 뺐고, 팝송 <I Wish You Love>, <My Way>, <Cuando Calienta El Sol 1>도 삭제했다. 대신 두 사람이 이미 혼성 듀엣으로 발표했던 <뒷모습> 외에, <사랑의 노래>, <1990년>, <연가>를 추가했다. 현대음향에서 발매한 3번째 버전 그대로 히트레코드에서 1976년, 1978년에 두 차례 재발매했으니 현재까지 확인한 재발매 음반만 5종인 셈이다.

아시아의 명곡으로 불리는 국민가요<이별>

일본에까지 알려져 ‘아시아의 명곡’으로 평가받는 패티김의 대표곡 <이별>은 나훈아, 최진희, 화요비 등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다. 또한 2012년 MBC 「나는 가수다」 시즌2에서 박미경이, 2015년 Mnet 「슈퍼스타K7」 톱10 경연에서 클라라홍이 열창했다. <이별>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가요로 사랑받고 있다.

□ 관련기사 - “대중가요, 시대의 ‘그곳’을 노래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은 역사적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
장들이 많았다. (……) 1960년대 발표된 노래들에선 전쟁을 딛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를 만날 수 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모든 자원이 서울로 집중되기 시작하던, 그 당시 서울은 이상과
욕망의 상징이었다.

패티김이 부른 ‘서울의 찬가’ ‘서울의 모정’에 나타난 도시 서울은 꿈이 이뤄지는 희망의 도시다. 반면 지
방을 소재로 한 노래들도 많았다. 서울이 이상향이었다면 지방은 소외된 현실이었다. 남겨진 사람들이 떠
난 입을 그리워하며 애를 태우는 슬픔의 땅으로 묘사됐다. 이혼향도 현상이 심해지는 데 따른 부작용과
아픔의 반영이었던 셈이다. ‘섬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춘천택사공’ ‘서울이여 안녕’ ‘소양강 처녀’
등에는 안타깝고 절절한 이별 이야기와 처연한 슬픔이 묻어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서씨는 저서 <한국
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에서 “1950~1960년대 대중가요는 역사의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불린 노래
이자 격동기를 관통하는 국민들이 겪었던 시대상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4년 12월 5일 기사내용 (<http://news.khan.co.kr>)

□ 관련기사 - “패티김, 15일 잠실에 시구자로 뜬다 '응원가 써준 LG에 감사'”

가수 패티김이 오는 1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트윈스 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
선다. 패티김은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팀의 응원가로 자신의 곡을 선택해준 LG트윈스에 감사의 보답을 하
고,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번 주말 LG트윈스 경기에 시구자로 서기
로 결정했다. LG트윈스는 오래전부터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서울의 모정’, ‘그대 없이는 못살아’ 등을
응원가로 사용해 왔다.

출처: SBS뉴스 2012년 4월 13일 기사내용 (<http://news.sbs.co.kr>)